

만남

2018년 1월
통권 156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타자성과 주체성-----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의 기쁨----	4
그리스도인의 유머	기합-----	7
교리	교리산책-----	8
기도 소개	겨울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선교 : 아시아의 소수 종교

아시아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소수 종교 신자들이 종교 생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타자성과 주체성

속이 빈 깡통 두 개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한 깡통이 말합니다. “내가 흐르는 저 강물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더니 이제 나는 신선한 물로 가득 찼다.”

이 말을 들은 다른 깡통이 자신도 목이 마른 차에 잘 됐다 싶어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숙이고 강물에 몸을 담가보았지만, 곧 떠오를 뿐 신선한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말은 모두 거짓이다, 강 속으로 들어가 가득 찬 물통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강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른 깡통이 그런 말을 외친 까닭은 뚜껑을 열지 않은 채 강물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빈 깡통이 머리를 숙이고 강에 들어갔더라도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 속을 비우고 또 겸손히 머리 숙여 실천했더라도 개방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자에 이런 우화가 실려 있습니다. ‘옛날 노나라 서울에 한 바닷새가 날아와 앉았다. 이를 안 노나라 임금의 이 새를 친히 궁궐 안 종묘에 데리고 와서 술을 권하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바닷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장자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대접해도 바닷새가 원하는 바를 살피 지켜주지 못하면 결국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타자성을 살피 지켜주는 것이 첫째라는 가르침입니다.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의 타자성과 주체성을 함께 인식하고서 먼저 자신을 열고 다가가는 행위입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자아를 주장하여 상대와 부딪치는 것이 아닙니다. 통념과 습속에 젖고, 무엇보다 자기 관심에 갇혀 있는 한 타인의 얼굴이 보일 리 없고 전체를 향한 책임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18년이라는 한 해는 상대의 타자성과 주체성을 함께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그런 깨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의 기쁨(시편 100,1-5)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당신께서 늘 저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소서.
-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저희가 당신 사랑을 느끼고 나누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00, 1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2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3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이어라.
4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5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미사나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서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일상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뻐하고 환호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완벽한 하느님의 백(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특권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과 괴로움, 기쁜 일들을 아뢰며 성전에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맘을 알고 계십니다. 흐느끼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당신 두 팔로 고요히 등 뒤에서 감싸 안으시는 당신의 따스한 손길을 느낍니다. “딸아 괜찮다. 아들이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 하십니다.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우리의 기도는 하소연과 부르짖음에서 차츰 침묵의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위로와 포근함에 나의 마음이 따스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나의 몸을 통해서 바라보고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흠으로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어 사람이 된 몸, 하느님의 영이 자리한 나의 몸, 나의 몸을 통해 하느님의 숨결을 체험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내 안에 자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고요와 침묵 속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몸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의 몸을 통해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몸을 움직여 당신 문으로 들어가고 당신 안뜰로 들어가서 찬양,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이 당신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자애가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나의 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기합

군인성당에서 주일미사를 집전한 군종신부가 교우들을 바라보았더니 성당이 군인들로 꽉 찬 게 아닌가! 주일마다 교우들에 적게 와서 사기가 죽은 이 군종신부가 신바람이 나서 그날따라 기도도, 강론도 자기 마음에 쏙 들게 잘 되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제의를 입은 채로 군종병에게 달려가 물어보았습니다.

“김 일병, 오늘 성당이 꽉 찼는데 도대체 웬일인가?”

사제 지망생인 군종병 김 일병이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신부님, 탱크 부대 병사들이 탱크를 깨끗이 닦지 못해서 그 기합으로 성당 가는 벌을 받았답니다.”

1.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운세’ 같은 것을 봅니다. 새해에는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어둠과 같습니다. 현재의 삶이 힘겨울수록 더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힘’을 빌려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간 시기(BC587-538년경)입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은 ‘야훼 하느님은 우리를 저버리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반성을 합니다.

현실의 고통에 파묻혀 하느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회개하면 그 옛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조상을 구해주신 것처럼 자신들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근원이시며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해와 달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다시 빛을 주시어 새벽을 맞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신앙고백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창세 1,3)



2. 왜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을까?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는 제가 주일을 잘 지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갈 곳도 많고, 행사도 많고, 생계를 위해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기 바로 전까지의 꼭 하루를 말합니다. 이날에는 완전히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옛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탈출 20,11)

안식일은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사밧(sabbath)’에서 유래되었으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신명 6,7)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쉬면서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업적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곧 주간 첫 날인 일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는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7일 주기를 채택하여 부활의 날을 기념하도록 교회의 전통이 생겨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연중 거행되는 ‘작은 부활 축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의 정점은 미사성제의 거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미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매 주일을 통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일 미사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3. ‘원죄’ 교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거리에서 누군가 외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이 외침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담긴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였으므로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였으므로 하느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조들이 지은 죄 즉, 원죄(原罪)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먼 옛날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첫 사람들의 죄를 강조하는 것은 죄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드러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죄 교리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원죄 교리의 핵심은 인간의 죄스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은총도 풍요롭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로마 5,19)

겨울 기도(김용원)

아버지,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당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어져 땅에 날리는 지금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당신을 소홀히 여긴 나를 용서하시며
저에게는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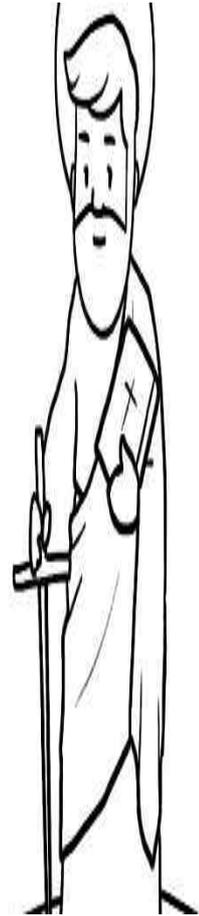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잘못하여 당신 곁을 떠날까 두렵나이다.

나를 망하게 해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던지
아니면 나를 흥하게 해서 떠나게 만드시되
지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은 다 소용이 없으며
당신의 기적만이 구원이 되는 이 때,
나는 당신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당신은 친히 이루실 수밖에 없나이다.

무엇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내게 있는 무엇이 대체 소용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소서.
이제는 친히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질문

남편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가정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았음에도 큰 꿈을 품고 사는 것이 보기 좋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 힘이 듭니다. 직장 동료들과 자주 다뤄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요즘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세상 한탄만 하고 삽니다. 생활비라도 벌러 다니라 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큰일을 준비 중인데 아내자가 재수 없이 군다면서요. 아이들도 이젠 아버지를 쳐다도 안 보려 합니다. 가진 것이 허세인 남편, 왜 이러는 것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남편이 가진 문제는 현실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무리한 일을 벌이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합니다.

이들은 꿈과 현실성을 갖추고 인생의 변수를 대비합니다. 마치 바다로 항해를 나가는 선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신경증적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람은 두 가지 ‘자기’(Self)를 가지고 삽니다.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입니다. 이상적 자기란 되고 싶은 자기를 말하고, 현실적 자기란 현재의 자기를 말하지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관심과 칭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즉, 열등감을 갖습니다. 현실의 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자기를 묻어 버리거나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립니다. 자신이 일류 대학을 나왔으며,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등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자기의 말에 도취가 돼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만스런 감정을 품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정치나 종교 이야기 같은 주제에 매달려 한담(閑談)을 나누고 자족합니다. 자신들이 지적인 엘리트라는 집단 도취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은 지나친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활동이 아니라 허세이기에 그런 곳에서도 귀찮은 존재 취급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심리학자 헤르베르트 프로이덴베르거(Herbert Freudenverger)는 이런 사람은 ‘탈진 증후군’에 걸리기 쉽다고 했습니다. 구멍 난 배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아 배는 나가질 않고 노 젓는 사람만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결국 배는 가라앉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나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면 거기서도 유사한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 활동과 같은 현실적인 삶보다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그런 와중에 작은 체험이라도 하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종교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해 심지어 자신의 기도빨에 대해 과대 홍보하고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을 추종자처럼 데리고 다닙니다. 금품을 받고 기도해주는 ‘기도 대행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사람들의 앞날을 예언해주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늘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에 자신이 하는 말은 모두 하느님의 계시라는 망상에 빠져 아예 자신만의 독립된 종교 단체를 만들어 종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교주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입니다.



제46회 성탄 바자(김진호 프란치스코)

우리에게는 매년 대림 첫 주 때마다 예수성심성당 독일교우들과 아울러 독일 개신교회 교우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나누고 있는 행사가 있다. 이 행사를 WEINACHTSMARKT 바자행사라고 칭하고 있다.

우리가 이 행사에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3년도부터 함부르크 교구의 배려로 우리가 여기 예수성심성당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사에 함께 하기 시작한 세월도 벌써 24년이 되었다.

오랫동안 해 오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바자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성당가족들의 많은 희생과 배려 그리고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온 음식들을 팔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모습들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우리가 이 행사를 시작하던 그 무렵 우리들은 젊음이 있었기에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어떤 일에도 두려운 줄 모르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면 24회 바자행사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다.

우리 본당에서는 함부르크에서 제일 큰 행사로 알려진 배구대회와 우리 본당 설립 25주년과 4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본당의 날 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치러지는 동안 우리들은 어느 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다.

오늘 바자행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마음 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고 있다.

우리가 바자행사를 함께 시작했던 세월이 24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면서도 누구하나 싫어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누구인가를 도울 수가 있다는 기쁜 마

음으로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본당가족들이 있기에 힘이 되고 자랑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오늘은 내 마음이 저려오고 콧대가 시큰해 온다.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시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모습들이 예전과 같지가 않고 조금씩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엔 주름살이 그리고 하얀 머리카락들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벌써 반세기 가까이 몸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 왔기에 우리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하네요. 세월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인 가 봅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고령이 되는 걸 피할 수 없으면서도 언제나처럼 즐겁게 봉사하고 계신 우리 함부르크 공동체 가족들의 열정적인 사랑과 봉사에 더 감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들의 정성은 제3국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에 우리들은 더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가족들에게 오늘까지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즐거운 신앙생활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맞이하는 2018년도에도 주님과 함께하시는 삶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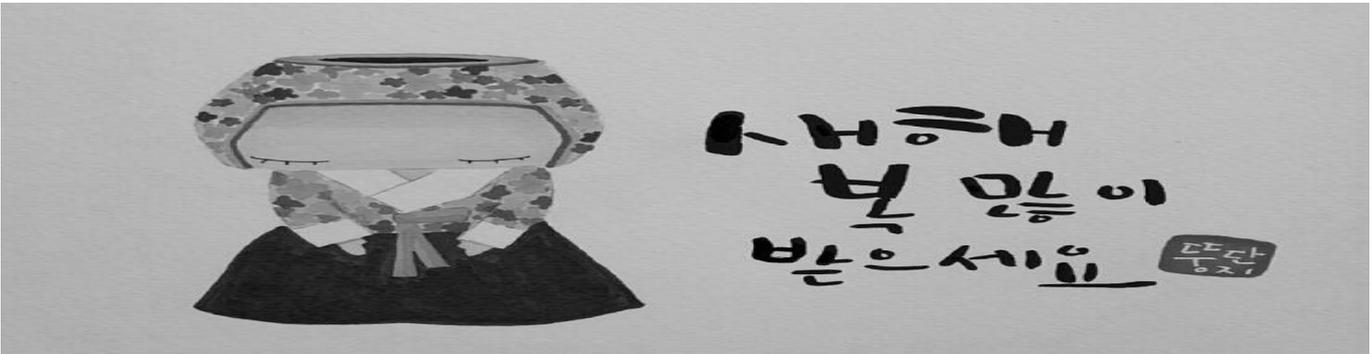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일	엘리사벳 앤 시튼	김 산	27일	안 젤 라 (St. Angela Merici)	남 창 순 최 희 주 배 소 라 민 경 은
21일	아 네 스 (St. Agnes)	유 곡 지 김 잔 디 정 진 아 김 정 혜 원 김 정 인 실 정 선 미	28일	카롤리네 (St. Karoline)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	김 계 희 백 정 선
			31일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강 석 길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 리 오	김형철(O)
5일	시 메 온	김석주(H)	21일	아 네 스 (St. Agnes)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이인영(B)
8일	지그리드	Giersberg Sigrid(O)			
17일	안토니오 (St. Antony)	문철주(H)	27일	안 젤 라 (St. Angela Merici)	김영희(H)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von Aquin)	고광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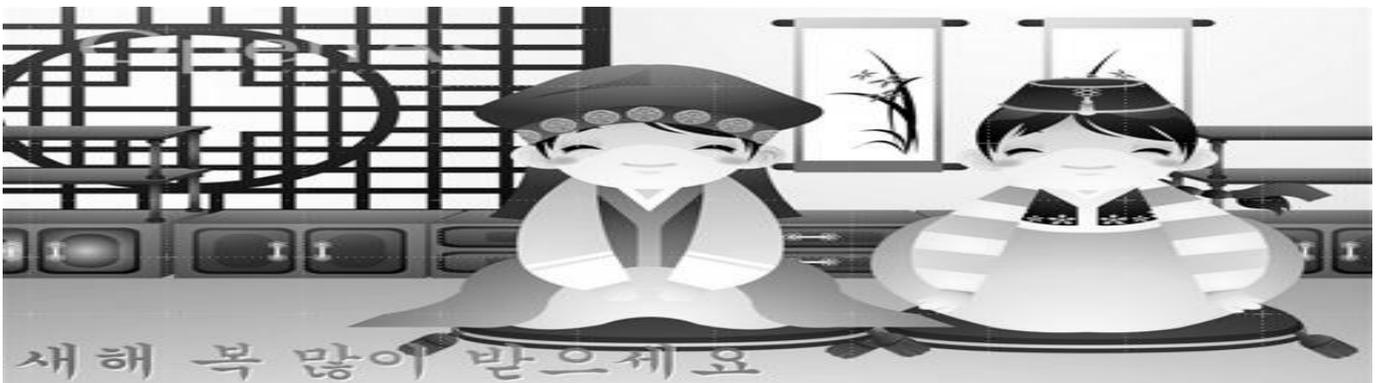


❖ 1월 성가번호 ❖

1월	입 당	봉 헌	성 체	과 견
1일	241	220	178	236
7일	487	215	180	100
14일	25	218	163	16
21일	62	217	170	19
28일	가 족 미 사			

❖ 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정명옥(살로메) 김애란(체칠리아)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전체신자
7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주일학교	요셉마리아회
14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잔디(아그네스) 윤혜진(모니카)	주일학교	1구역
21일	김매자(베로니카) 최성자(벨라델타)	김부남(베드로) 박우연(루치아)	청년	2구역
28일	가 족 미 사			3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1월 26일	12월3일	12월 10일	12월 17일
계(€)	257.66	254.45	227.21	296.16
헌납금	150.00		40.00	20.00
구좌입금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00.00 * 헌납금 총 합계 510.00			

❖ 자진헌납금 ❖

2017년 11월 26일 — 2017년 12월 17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방은일, 정마리아, 박준실, 최승진, 정순문, 강순행, 노정자,
 정명옥, 이철우, 김기연, 이종하, 배성우, 정정숙, 이정은,
 현영애, 김민옥, 김민수, 박성아, 신옥희, 심동근, 황영선,
 한선지, 윤예진, 한규호, 서세원, 최순남,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종지, 이궁중,
 이석우, 이정수, 이수용, 김용일, 김 건, 김경미, 김형용,
 우동천, 옥종인, 진윤희, 문경희, 한말조,

구좌입금 :

이영원, 최화영, 문세바스티안 수진, 아일링호프 정숙, 홍경영,
 옥수 라니취, 박종래, 김유석, 방조영자, 김동수, 김원자,
 최성자, 허재열, 김부남, 백정선, 허두옥,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지수, 김진호, 김수혜,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남궁준배, 허길조, 영희 에거스테트,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018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게 꾸미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하며, 미사 후에는 신정을 맞이하여 떡국을 함께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한국 신자분들에게는 의무축일입니다.
3. 예비신자 교리반은 1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습니다. 한 분의 예비신자가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4. 1월 7일 일요일 17시에는 만남성당 회합실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5. 1월 27일 토요일 19시에는 함부르크 외곽의 Neugraben 성당에서 안스카 주간의 시작 프로그램으로 Kulturabend가 있습니다. 함부르크 교구 내의 외국인 공동체들도 함께 참여하여, 각 나라의 성가도 소개하고,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도 참여합니다. 저녁 미사로 시작되는 이 행사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브레멘 공동체의 성탄 축제>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12월 정기미사는 대림 제1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에는 신부님의 유익한 덕담과 노래, 학생자매님들의 노래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작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시고 산타로 분장하시어 선물을 나누어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 12월 소공동체 모임은 한주 앞 당겨 13일 Bremen과 16일 Visbek에서 있었습니다.
4. 2018년 첫 번째 정기미사는 1월 6일 17시에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는 항상 그러하듯이 떡국 잔치가 있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오윤숙(스콜라스티카) 자매님 가정이 독일 생활을 마치고 1월 4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매님 가정의 앞날에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4.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며 신부님과 함부르크 본당, 그리고 모든 지방 공동체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2월 공동체 미사는 12월 9일(토), 대림 제2주일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2. 12월 미사 전에는 판공성사가 있었으며, 미사 후에는 신부님과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성탄파티를 하였습니다.
3. 2018년 1월 공동체 미사는 1월 13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연중 제2주일 미사로 봉헌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역장모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감	최 영 자 파 울 라	040/ 3865 3332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재미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 (정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정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떡국 나눔	만남 성당 강당
2	화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수	주님 공현 전 수요일		
4	목	주님 공현 전 목요일	믿음의 샘 뿌리아	
5	금	주님 공현 전 금요일		
6	토	주님 공현 전 토요일		브레멘 공동체
7	일	주님 공현 대축일	예비신자교리	
8	월	주님 세례 축일		
9	화			
10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1	목			
12	금		2구역 소공동체	
13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4	일	연중 제2주일	청년 소공동체	
15	월			
16	화			
17	수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18	목	연중 제2주간 목요일(일치 주간)		
19	금			
20	토			하노버 공동체
21	일	연중 제3주일		
22	월			
23	화			
24	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25	목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연령회	
26	금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27	토		19:00 Kulturabend in Neugraben	
28	일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가족미사	
29	월			
30	화			
31	수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